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7
2025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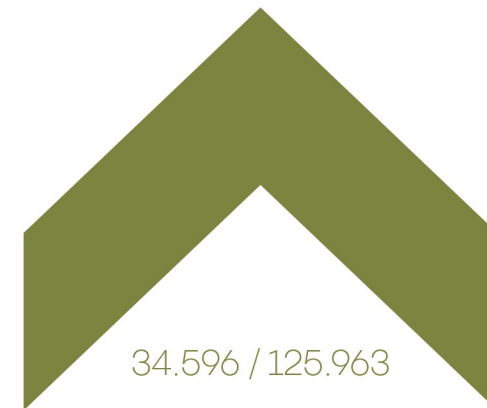


전라남도
신안 대야도·신도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RESOURCE
TRAVEL
NEWS & ISSU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7
2025년 7월



전라남도 신안 대야도·신도

- ISLAND KEYWORD
- FRIENDS
- PHOTO STORY
- LIFESTYLE
- PEOPLE
- RESOURCE
- TRAVEL
- NEWS & ISSUE

CONTENTS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02 마을어장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03 기억에 남을 여름휴가를 원하시나요?
: 김준 님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7 신안 대야도와 신도에서 만난 풍경
: 박관호 님

섬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섬센터에 언제든지 공유해주세요.

에디터 김신연

*전화: 061-286-6764 *이메일: fun1015@korea.kr

전남의 섬에서 펼쳐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15 조용한 섬을 잇는 목소리
: 정정균 님
- 19 바다가 준 삶의 선물, 신도
: 이만숙 님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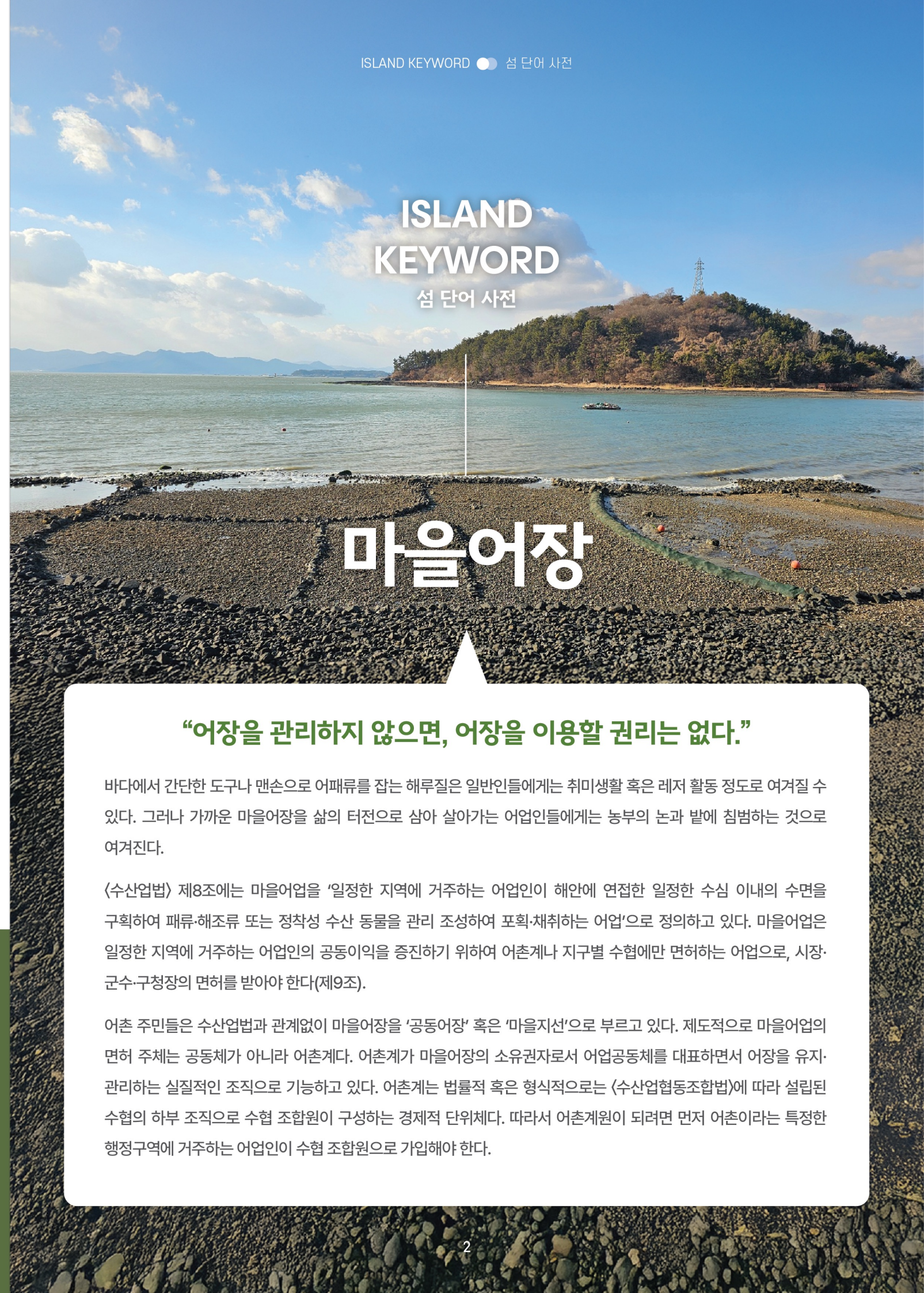
- 23 1월부터 12월까지,
신안 대야도·신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 24 알아두면 쓸모있는 K-섬 잡학사전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 25 신안 대야도·신도 투어 가이드
- 31 디지털 전파 끊고, 섬에 접속합니다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 33 한국섬뉴스와 함께하는 이달의 주요 섬 뉴스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마을어장

“어장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장을 이용할 권리는 없다.”

바다에서 간단한 도구나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은 일반인들에게는 취미생활 혹은 레저 활동 정도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가까운 마을어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어업인들에게는 농부의 논과 밭에 침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산업법〉 제8조에는 마을어업을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 동물을 관리 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에만 면허하는 어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9조).

어촌 주민들은 수산업법과 관계없이 마을어장을 ‘공동어장’ 혹은 ‘마을지선’으로 부르고 있다. 제도적으로 마을어업의 면허 주체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촌계다. 어촌계가 마을어장의 소유권자로서 어업공동체를 대표하면서 어장을 유지·관리하는 실질적인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어촌계는 법률적 혹은 형식적으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의 하부 조직으로 수협 조합원이 구성하는 경제적 단위체다. 따라서 어촌계원이 되려면 먼저 어촌이라는 특정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도움 주신 분들

- 김준 섬 문화 박사 겸 작가
- 신안군 하의면사무소 이은희 주무관
- 박관호 신안군청 작은섬정원과 팀장
- 신안군 하의면사무소
- 정정균 신안 대야도 이장
- 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
- 이만숙 신안 신도 이장
- 양진형 한국 섬 뉴스 대표

발행처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글·사진 김신연, 정태균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가고 싶은 섬 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발간된 ‘시웃’이 궁금하다면?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기억에 남을 여름휴가를 원하시나요?”

김준

섬문화답사기 저자, 한국섬진흥원 이사,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섬사랑호가 당두로 들어오고 있고, 대야도로 갈 여객선 슬로시티호는 포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뱃길이 좋아지면서 포구도 섬도 활기가 넘친다. 섬사랑호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여객선이고, 슬로시티호는 신안군이 ‘여객선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운항을 시작한 배다. 하의도 당두에서 출항하는 슬로시티3호는 하의면에 딸린 몇 개의 섬을 순항하는 시내버스 같은 여객선이다. 육지와 섬만을 연결하던 과거의 뱃길에서 섬과 섬을 연결하는 항로가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삶이나 여행객의 여행패턴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 하의면 당두항에 닿은 섬사랑호

Story 1. 해무를 뚫고 찾은 섬, 대야도

‘저보다 아내가 더 좋아해요,’ 몇 년 전 퇴직을 하고 작은 섬에 자리를 잡은 이씨, 아내가 직접 커피를 내려서 가져오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다. 퇴직한 남자의 로망을 모든 이룬 이씨의 집은 정원과 텃밭은 물론 손님이 머무를 별채까지 갖추었다. 그가 목포에서 하의도까지 쾌속선을 타고, 다시 하의도에서 대야도까지 배를 갈아 타야 하는 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말 섬다웠고, 깨끗했다. 낚시를 즐기는 아내는 대놓고 찬성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이씨는 대야도가 낚시하기 괜찮은 곳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육지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섬 집에 눌러앉았다.

대야도는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에 속하는 작은 섬이다. 하의면은 하의도를 포함해 대야도, 신도, 장재도, 능산도, 개도, 문병도, 장병도, 옥도 등 8개의 유인도가 있다. 이씨의 아내가 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육지의 집보다 더 좋기 때문이다. 집이 좋은 것은 섬이 좋다는 의미다. 그래서 낚시하면서 잠깐 머물다 갈 생각이었지만 오히려 더 긴 시간을 섬 집에 머물고 있다. 취미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섬이 쾌적하고 마을이 깨끗하다. 그동안 불편했던 것이 생필품을 구하는 일이었지만 여객선공영제를 시행하면서 하루에 두 차례 오가던 뱃길이 일곱 차례로 늘어났다. 덕분에 하의도만 아니라 인근 도초도나 비금도까지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생필품도 큰 마트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에 몇 가구가 섬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빈집만 나오면 들어오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장을 비롯한 부녀회장 등과 소통하며 섬마을을 가꾸는 일에 작은 힘이나 보탬 수 있게 되었다. 섬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물으로 나가는 일이 줄어든 이유다. 덕분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씨 부부의 손길 속에서 피어난 접시꽃 ▶

Story 2. ‘섬밥상’만으로 그리운 섬이 있다

섬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목적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나는 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반드시 꼽는 것이 ‘섬밥상’이다. 섬 주민의 집에서 섬밥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교통이나 숙소가 불편해도 감내한다. 왜냐하면 밥상을 보면 섬이 보인다는 지론 때문이다. 게다가 섬 밥상을 내놓는 주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바다가 보이고, 섬을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여행으로 바뀔 수 있다.

신안군 하의면 신도를 다시 찾은 이유다. 신도는 신안에서 교통이 불편하기로 손꼽는다. 여객선이나 도선도 다니지 않는 섬을 제외한다면 가장 불편할 것 같다. 주민들은 자기 배로 오갈 수 있지만 여행객의 시선으로는 오지이고 낙도다. 예상대로였다. 금어를 앞두고 이씨가 그물을 털어온 꽃게를 삶아 왔다. 여기에 꽃게 무침(무침)과 꽃게 된장국도 내놓았다. 톰툰이 잡은 생선은 해풍에 말려 놓는데 민어와 농어를 찌서 내놓았다. 세상에 민어와 농어를 반찬으로 내놓다니. 그리고 식사를 하는 내내 신도 바다와 고기잡이 그리고 계절별로 나오는 물고기 이야기가 이어졌다. 내가 그리워했던 섬밥상이다.



▲ 신도에서 다시 만난 그리운 섬밥상



▲ 마을의 뜻을 모아 세운 기념비

신도는 섬 학교인 신도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영화가 촬영된 장소이기도 하다. 지금도 골목과 집들과 포구가 1970년대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당시 지붕에는 초가를 얹고 골목은 흙을 덮어 촬영했다. 비록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당시 섬마을에서 선생님의 위치와 역할을 살피는데 좋은 영화다. 실제로 신도에는 1975년 신도분교에 부임한 젊은 부부 교사가 교육을 물론 섬마을 발전에 헌신했던 분이 있다. 문을 닫은 학교로 가는 길목에 마을 주민들이 세운 기념비가 남아 있다. 영화처럼 부부교사는 낙도에 들어와 무료 의료, 이발봉사, 식수난 해결, 도선 건조, 양식업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맡아 했다.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주민들이 기념비를 세웠다.

Story 3. 무인도가 되는 작은 섬을 막는 해법은

작은 섬이 무인도가 되는 것을 막는 일은 어렵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섬정책을 추진하는 행정과 공공기관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수십, 수백 억의 세금을 쏟아붓기도 한다. 하지만 효과를 검증할 만한 예도 아직은 없다. 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기데 급급했다. 그런데 작은 섬이 무인도가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신도처럼 제철에 섬과 바다에서 재료로 섬 밥상을 잘 차려내 섬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대접하면 가능할 수 있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웃 대야도처럼 섬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금상첨화다. 큰 아파트에 산다고 정리 정돈이 잘되고 깨끗하지 않다. 작은 집이라도 있어야 할 곳에 필요한 것이 놓이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정리가 중요하다.



▲ 신도의 골목을 가득 채운 수국의 물결

작은 섬은 이 부분이 더욱 절실하다. 여행객나 방문객이나 섬다움에 감동을 받을 때 다시 오고 싶고, 머물고 살고 싶어진다. 대야도는 마을 앞에는 농사를 지었던 논이 대규모 습지로 바뀌고 있다. 사유지이지만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과 같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 임대를 하거나 매입해 습지로 관리한다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또 대야도는 물이 좋고 산이 높다. 안심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 정도는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작은 섬이 무인도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추천할 만하다. 대야도나 신도에는 아담한 해수욕장이 있다. 작지만 먼바다와 접하고 있어 물이 좋고, 오염되지 않았다. 여름철에 나만의 여름휴가를 즐기고 싶다면 추천한다. 교통과 숙박이 불편한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다면 멋진 여름 추억을 쌓을 수 있다.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신안 대야도와 신도에서 만난 풍경

SPECIAL GU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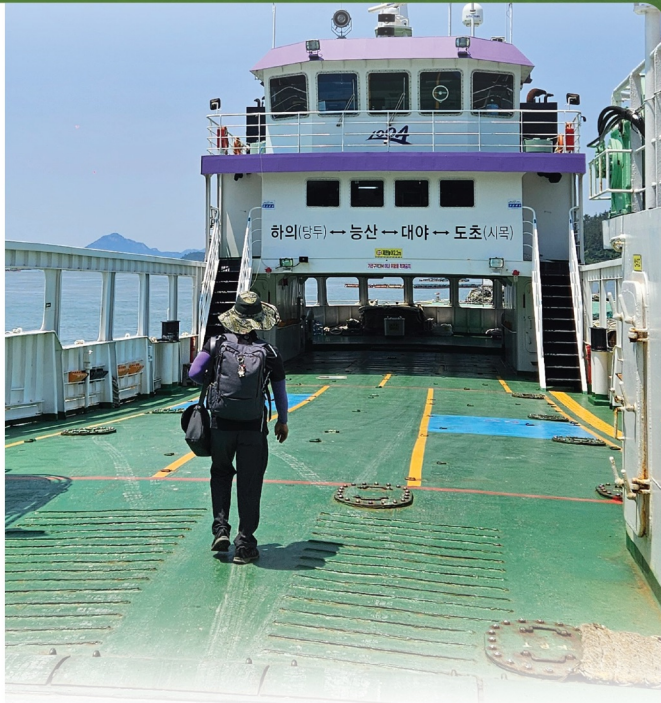
박관호 신안군청 작은섬정원과 팀장

꺾이지런 암봉이 인상적인 대야도 ▲

Story 1. 해무를 뚫고 찾은 섬, 대야도

6월의 어느 날, 바다를 건넜다. 20여 년 전 하의면사무소 근무 시절 출장 길에 한번 들렀던 대야도, 문화관광과 근무시절 '서울이보이나'라는 영화 촬영 지원을 위해 몇 번 가본 신도라는 섬이 기억의 끄트머리에서 손을 흔들었다. 신도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몹시 궁금해졌다. 오랜만에 찾아가는 섬이기에 설레기도 했다.

하지만 바다는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아침 5시반 목포항을 출발하기로 했던 배편이 짙은 해무에 갇힌 채, 네 시간 넘게 배 안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안개가 걷히자 쾌속선은 늦은 항해를 시작했고, 하의도에서 급히 점심을 먹고 다시 배를 갈아타 대야도로 향했다. 대야도는 하의도에서 서쪽으로 4.3km, 높은 산과 만으로 구성된 조용한 섬마을이다.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에 속해 있으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품 안에 있다. 섬 중앙의 저지대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선착장에 자 가장 먼저 반겨준 이는 정정균 이장님이었다. 그는 '깨끗한 섬 만들기'에 누구보다 진심인 분이였다. 온 마을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화물차에 싣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야도의 얼굴이었다.



▲ 신안 대야도 탑승선에 오르는 박관호 팀장



▲ 대야도 마을 앞에 펼쳐진 몽돌 해변



▲ 대야도 이야기를 나누는 박관호 팀장(좌)과 정정균 이장(우)

Story 2. 파도 위 몽돌, 그 뒤의 은빛 해변

마을 앞엔 차르륵 차르륵, 몽돌이 부대끼는 400미터 해변이 펼쳐진다. 작지만 소박한 아름다움. 마을뒤 남쪽 언덕 너머로는 또 다른 숨은 보물, 은모래 해변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해무에 쌓인 대야도의 실루엣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다.

마을 앞 습지에는 갈대와 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과거 논으로 사용되던 이 1만8천m²의 땅은 지금은 습지로 남았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어 보였다. 주민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산이 좋은 대야도는 등산로만 생기면은 참말로 좋을 것인디."



◀ 신선한 해산물로 차려진 신도 섬밥상

Story 3. 바람을 따라 신도로

오후 5시, 대야도를 뒤로하고 다시 바다를 건넜다. 슬로시티3호를 타고 '서울이 보이냐'의 그 섬, 신도로 향했다. 해안선이 길게 뻗은 항구는 20년 전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식사와 숙소를 부탁드린 신도 이장님 이만숙 씨를 만났다. 젊은 시절 도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다 귀향한 지 40여년이 되어간다는 그의 얼굴엔 섬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섬살이는 여전히 쉽지 않다. 공동 급수시설이 고장나서 수도물도 끓인 상황. 우리의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난감한 표정이 교차했다. 해질무렵, 하의도로 일하러 가야 한다며 고깃배를 몰고 나가는 이장님의 모습에서 생의 진중함이 묻어났다. 저녁 식탁에는 신도의 땅과 바다가 차려졌다. 직접 잡은 생선과 꽃게, 키운 채소가 가득한 '신도 밥상'. 뒷마당에는 새끼 흑염소들이 놀고, 우리 안의 흑돼지가 꿀꿀대며 반긴다. 섬의 밤은 그토록 고요했고, 따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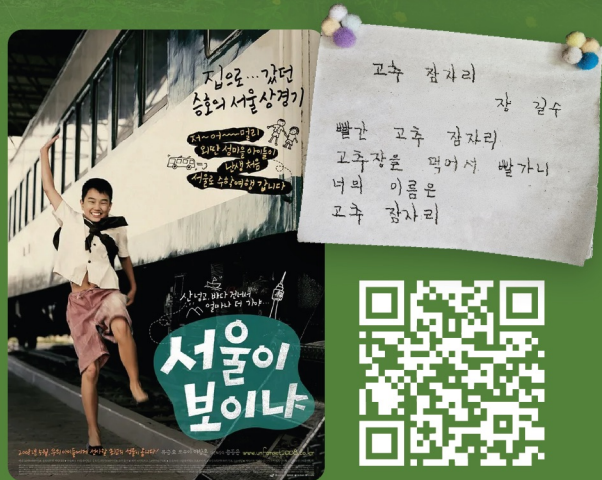


◀ 하의초등학교 신도분교(폐교)

Story 4. 학교에서 만난 시간의 조각

다음 날 신도 초등학교를 찾았다. 마을의 가장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 풍광이 빼어난 스팟이다. 폐교된 건물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교실 뒤편 벽에는 그림 한 점, 시 한편이 붙어 있었다. 폐교전 마지막 학생들의 작품이겠거니 하고 연신 사진을 찍었다. 이름도 붙어있어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신도 출신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림과 시의 주인을 묻자,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며칠 뒤, 다시 사진을 보며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화 촬영 당시 붙였던 소품이었다. 씩씩하면서도 기묘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 흔적이 20여년을 그대로 벽에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신도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겹쳐 놓았다.

학교에 남은 영화 촬영의 흔적, 극 중 유승호가 쓴 시 한 편 ▼



서울이 보이냐(2008) 영화 정보 보러가기 ▲ *정보출처: 씨네 21



신도의 해변과 나란히 자리한 목섬(항도) ▶

Story 5. 신도해변과 대나무숲

신도해변은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우리나라 아름다운 해수욕장 15선'에 뽑히기도 했다. 고운 모래, 넓은 백사장, 해변 너머 대나무 숲길이 한데 어우러진 장면은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찼다. 가까이 있는 목섬도 가까이 보니 제법 규모가 있었고, 그 뒤편 해안 절벽은 웅장했다. 백사장에는 알록달록 다양한 무늬가 새겨진 주민들이 꽃조개라고 부르는 민들조개가 서식하고 있다.



잃어버린 드론을 찾아 나무 위로 오른 박관호 팀장 ▲

어제 저녁 해무의 방해로 찍지 못한 신도 해변과 섬을 찍을 요량으로 드론을 띄웠다. 신도 해변을 한참 날아다니던 드론이 갑자기 추락해 버렸다. GPS를 통해 확인해보니, 녀석은 신도 숲 한가운데 떨어졌다. 가시덤불에 찢리고 모기에게 헌혈하며 숲속을 한참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기체 오류인지 조종 실수인지 알 길은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사진도 영상도, 몽땅 그 숲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Story 6.

“아름다운 섬, 사람이 있어야 한다”

신안군에는 1,000개가 넘는 섬이 있다. 그중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77여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름만 남은 섬들이다. 고운 모래사장과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갯벌, 갈대가 흔들리는 몽돌 해변, 깎아지른 절벽 등 작은섬들은 그 자체로 예술이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편에는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현실이 있다.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섬들은 빠르게 무인도화가 진행된다. 사람이 떠난 섬엔 이야기가 없다. 학교가 닫히고, 가로등이 꺼진다. 대대로 이어온 생활의 방식과, 땀감나무를 섬 이름에 새겨넣던 섬 사람들의 정신도 함께 사라진다. 작은 섬의 무인도화는 곧 지역문화와 생활사의 단절을 뜻한다.



▲ 안개 속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신도와 주변 섬들

신안군은 '1도1뮤지엄', '1도1색', '1도1정원' 등의 정책을 통해 섬의 정체성과 관광가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관광으로만 섬을 유지할 수는 없다. 관광 이전에, 먼저 그 섬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물이 나오지 않고, 쓰레기를 버릴 수 없고, 병원도 학교도 없는 섬은 결국 텅 비어간다. 우리는 오직 섬의 '풍경'만을 소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활 인프라의 구축, 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선, 생필품 배송, 고립 시 긴급대응 체계, 귀촌인을 위한 주거 및 일자리 마련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섬은 생명이고 기억이다. 섬은 단지 지리적 고립 공간이 아니다. 그곳엔 누군가의 유년이 있고, 어머니의 손맛이 있고, 바다를 지게데 지고 나르던 아버지의 어깨가 있다. 섬마다 축적된 삶의 방식과 생태는 모두 이 땅의 '살아있는 기억'이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문화적 자산을 잃게 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 숨 쉬는 섬, 그리고 미래에도 누군가의 '기억'이 되는 섬으로 남게 하려면 말이다.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눈부시지 않아 더 오래 빛나는 섬



▲ 하의도 당두선착장에 천천히 닿아오는 섬사랑호

바쁜 하루에 마음 둘 곳 하나쯤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늘 앞만 보고 걷다 보면 가끔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땐 조용한 바닷길 끝, 작은 두 섬을 떠올려보세요. 신안군 하의면 바다 위, 단단하고 따듯 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야도와 신도. 지도 위에선 손 닿을 듯 가까운 거리지만 이 두 섬은 서로 다른 속도와 온기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대야도와 신도를 잇는 배는 하의도 당두항에서 출발합니다. '섬사랑15호'와 '슬로시티3호'라는 이름의 작은 여객선을 타면 약 10분 만에 섬에 도착할 수 있어요. 뱃길로는 가까이 이어져 있지만 섬 주민들이 드나드는 생활권은 서로 다릅니다. 대야도에 사는 사람들은 도초도로, 신도에 사는 사람들은 하의도로 생필품을 사러 갑니다. 가끔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나들이가 되지요. 잠시 바깥바람을 쐬고 돌아오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일상 속 소중한 심포가 됩니다. 조용하고 작은 섬. 그 속에는 아주 다른, 그리고 아주 따뜻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 드론으로 바라본 신안 대야도의 전경('25년 6월 18일)

Chapter 1. 대야도, 숲이 조용히 속삭이는 섬

대야도는 전체 면적 3.99km², 해안선 약 15.19km의 산이 많은 섬입니다. 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울창한 숲은 멀리서 보면 평온하게만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산의 높이는 약 300m 남짓이지만 곳곳에 깊게 패인 계곡과 굴곡이 많고 바위로 뒤덮인 지형에 길도 뚜렷하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어집니다. 대야도라는 이름도 바로 이 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큰 산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대서리(大西里)'로 불렸고 하의면에서 가장 높은 산(306m)이 이 섬에 있다는 이유로 이후 '대야도(大也島)'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거칠고 단단한 만큼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뿌리내린 주민들과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대야도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적은 섬이지만, 그만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바다의 물때를 함께 나누며, 작은 정보 하나에도 서로 귀 기울이는 이곳에서는 하루하루의 평범한 순간조차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까요? 대야도의 풍경은 자연이 만든 것이지만, 그 안을 채우는 따뜻한 공기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길이 없어도 함께 걸을 사람이 있고 바다가 거칠어도 같이 건너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Chapter 2. 신도, 바람이 말을 거는 섬

대야도에서 약 3.4km 떨어진 바다너머엔 '신도(薪島)'가 있습니다. 면적 1.47km², 해안선은 약 16.16km. 지도 위에선 금세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그 안에 담긴 분위기는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신도는 예로부터 '쇳섬'이라 불렸습니다. 섬 전체에 나무가 많아 땀감으로 쓰이던 기억이 지금은 해송 숲으로 자라나 백사장에 조용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죠. 800m에 이르는 신도해수욕장은 대야도 주민들 사이에서도 '아름다운 해변'로 통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해수욕을 즐기러 오는 발길이 줄어 올해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바다는 더 고요하고 해송 숲길의 그늘은 더 깊이 드리워지는 것 같아요. 신도의 마을 풍경은 말수가 적어요. 대신 바람 소리, 파도 소리, 해송이 흔들리는 기척이 섬의 마음을 조용히 전합니다. 그 마음은 누구든, 잠시 멈춰 걷는 사람에게 고요하고 깊은 위로가 되어줍니다.



▲ '드론으로 바라본 신안 신도의 전경('25년 6월 19일)

“**눈부시지 않지만 오래도록 따뜻한 두 섬.**
대야도와 신도는 오늘도 천천히, 누군가의 마음을
다정히 감싸고 있습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조용한 섬을 잇는 목소리

정정균 대야도 이장



정정균 대야도 이장

▲ 1962년 10월 9일 촬영된 대야초등학교 단체 사진

Q1. 언제부터 대야도에 살게 되셨나요?

대야도는 제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대야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다와 숲을 벗 삼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년 시절 섬을 떠나 목포에서 25년간 목회 활동을 이어왔지만, 마음속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은퇴를 앞두고 조용한 삶을 준비하며 다시 대야도로 돌아왔고, 지금은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주민으로서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 다시 새롭게 고향을 알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 마을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정균 이장

▲ 깔끔하게 분류된 대야도 마을 쓰레기

Q2. 대야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대야도는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무해한 섬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풍경, 너른 바다, 그리고 삶의 속도가 느긋하게 흘러가는 이곳에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이웃 간의 정이 깊고,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어요. 섬은 각자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색을 해치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야도는 그런 조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하루에도 7번이나 배가 드나드는 덕분에 섬과 육지를 잇는 길도 꽤 편리한 편입니다.

Q3. 이장 일과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이장의 하루는 트럭에서 시작해 트럭에서 끝납니다. 마을 곳곳의 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 품목을 모아 트럭에 싣고, 하의도로 옮기는 일이 이어집니다. 집집마다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하나하나 정성껏 수거하고, 플라스틱, 유리, 캔처럼 품목별로 분리해 깔끔하게 정리하죠. 깨끗한 대야도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지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과 마을 사이의 다리 역할도 맡고 있어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전하고, 외지에서 섬을 찾는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에 머물고 싶은 분들을 위해 노인정 공간을 숙소처럼 쓸 수 있도록 마련했어요. 1박에 3만의 숙박비를 받고, 그 수익으로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 봉투를 구입해 다시 주민분들께 나누어 드립니다. 이 일에는 마을 총무 정애라 님과 이충만 선생님이 함께 애써주고 계세요. 섬에서는 누구 하나의 일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몰고 다니는 작은 쓰레기 트럭은 어쩌면 이장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일지도 모르겠네요.



◀ 마을을 지키는 큰 어른, 정정균 이장

Q4. 최근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요즘 대야도에는 새로운 분들이 하나둘 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섬마다 변화의 속도와 모습은 다르지만 대야도처럼 이주 인구가 차츰 늘어나는 모습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더욱 의미 있는 건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과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함께 밥을 나누고, 마을일을 돕고, 섬의 자연을 아끼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지요. 과거의 대야도가 지닌 소중한 기억과 가치를 지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야도를 준비해가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우리 섬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천천히 단단하게 나아가는 변화. 그 길 위에 대야도의 새로운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Q5. 앞으로 어떤 섬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대야도는 작고 조용하지만 사람 사이의 거리는 참 가깝습니다. 이웃의 안부를 먼저 묻고 함께 나눌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어놓는 일상이 익숙한 섬이지요. 그런 따뜻한 삶의 분위기 속에서 대야도를 찾는 분들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들르는 고정 방문객 분들 가운데는 '섬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섬이 지닌 매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대야도의 풍경과 잘 어우러지는 소박한 둘레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인위적이지 않아도, 이 섬의 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섬을 찾는 분들께도 더 깊은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야도에는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나무와 숲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을 지키면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작은 화장실, 간단한 안내시설처럼 꼭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변화는 섬의 시간이 흐르는 속도에 맞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왔으면 합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섬의 삶이 조화롭게 이어지는 대야도. 그런 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디터 이야기

Editor's Note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섬

정정균 이장은 오늘도 트럭 운전석에 앉아 섬 곳곳을 누립니다. 마을 집집마다 놓인 쓰레기봉투를 조심스레 신고, 종류별로 분리하며 묵묵히 하루를 정돈해갑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건 '이장의 일'이라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버려지는 것을 정리하고, 남겨진 것을 돌보며, 이웃의 마음을 잇는 일. 그 모든 순간은 소리 없이 섬을 가꾸는 마음이자, 서로를 향한 조용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야도는 오늘도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섬이었습니다.

바다가 준 삶의 선물, 신도

이만숙 신도 이장



Q1. 신도에서 언제부터 생활하였는지요?

2013년 몸이 아파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 신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도는 제 고향이기도 해요. 처음엔 혼자 시작한 섬살이였지만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신도에 살고 있는 누나들의 응원 덕분에 이곳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었죠. 섬에서의 생활은 바다가 주는 힘과 사람들의 온기 덕분에 점차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지금은 신도 앞바다를 '수족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바다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어떤 근심도 사라지고 마음이 환해져요. 지금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참 행복합니다.



바다로 향하는 이만숙 이장 ▶

Q2. 하루 일과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저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쯤 시작됩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전, 그물과 장비를 챙겨 바다로 나가 조업을 하지요. 오전 7시쯤 배를 정박시키고, 그날 잡은 생선을 정리해 바로 소비자들에게 보냅니다. 올해 하의도 본섬에서 새로 시작한 염전을 점검하기도 해요. 틈틈이 집에 돌아와 손수 만든 그물을 다시 손보고 해 질 무렵이면 다시 바다로 나가 짧은 조업을 더 이어갑니다. 바쁘고 부지런한 하루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바다의 시간과 손으로 지어가는 노동의 결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됩니다.



▲ [마을에서 고기 제일 잘 잡는다, 올리는 것마다 목직한 사이즈 꼴랑 3마리 잡더니 퇴근하는 어부 | 한국기행 | 2025. 6. 26

Q3. 어복이 많은 어부로 방송에도 소개되었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처음 바다에 나갔을 땐 시행착오도 많았고 바다를 이해하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도 물의 흐름과 어종의 습성을 읽는 눈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물 준비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어종에 따라 직접 미싱을 돌려 바느질하고 계절과 바다의 조건에 맞게 구조를 조금씩 달리하죠. 그렇게 손끝으로 만든 그물이 저만의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준비는 오래 걸리지만 그 시간이 쌓여 바다에 나갈 때마다 설렘이 생깁니다. 바다는 늘 정직해서 손을 들인 만큼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 한가득 올라온 바다의 선물, 민어



Q4. 가장 기억에 남는 조업이 있다면요?

민어가 2톤 넘게 잡혔던 날이 있어요. 그중 가장 큰 건 37kg이었는데 팔에 안겨 들어오는 무게가 참 벅찼죠. 주변 분들도 다 놀랄 만큼 큰 조업이었고, 마을 안에서도 그날 이야기가 한동안 오갔습니다. 함께 바다에 나갔던 가족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했던 기억이 오래 남아 있어요. 바다는 늘 같은 얼굴을 하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큰 선물을 내어 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나 오랜 시간 준비 해온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날의 물결과 기쁨은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살아 있습니다.

완판 행진, 이만숙 이장의 민어 ▶



Q5. 앞으로 이장으로서는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신도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섬이지만 생활 속 어려움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바람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에요. 현재는 수돗물이 자주 끊기고, 고장을 반복하다 보니 집집마다 물을 받아 두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엔 더욱 불편함이 커지고요. 주민분들 모두가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작은 섬이지만 사람들의 삶은 결코 작지 않기에 더 따뜻한 환경이 함께하길 바라며 그 일을 위해 이장으로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신도를 지키는, 이만숙 이장 ▶



에디터 이야기

Editor's Note

신도 앞바다는 나의 수족관입니다

이만숙 이장의 하루는 정말 바빴습니다. 새벽 바다의 짙은 물안개를 헤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직접 퀘맨 그물을 조심스레 펼치는 손끝까지. 그의 삶은 바다와 마을,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엮어내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도의 앞바다를 '수족관'이라 부를 만큼 깊이 사랑하는 마음.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도 이 섬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신안 대야도와 신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대야도

농어
민어
우럭
광어

참돔
감성돔
장어

갑오징어
간재미
불바리

전복
(양식)

귤
레드향
천혜량
한라봉
(소량생산)

월 3 4 5 6 7 8 9 10 11 12 1 2

신도

농어

갑오징어

꽃게

돌미역(자연산)

7월

민어·서대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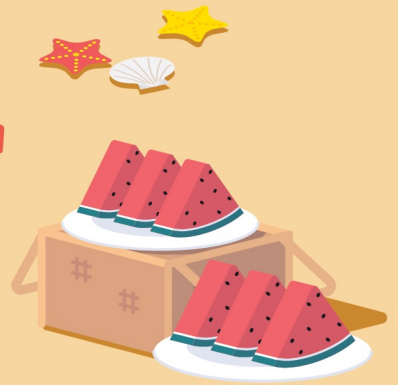
감성돔·광어

9월 초

김
(양식)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쓸K-섬잡' K-섬 잡학사전



알아두면 쓸데없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쓸모 가득한 KOREA-섬 잡학사전!
전라남도 해수욕장 캐릭터 남도씨(Sea)와 함께 떠나볼까요?

전라남도 2025년 공식지정 해수욕장은
7월 5일(토)부터 8월 24일(일)까지 운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53곳 중 무려 16곳이 배를 타고 가는
섬 해수욕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육지보다 더 깨끗하고 한적한 바다, 섬 해수욕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여름의 맛'을 즐겨보세요.



▲ 남도씨(sea)

전라남도 섬 해수욕장 Check!

- 목포시 (1개) 외달도
- 여수시 (2개) 거문도, 안도
- 영광군 (1개) 송이도
- 완도군 (7개) 평일도(금일명사십리), 청산도(지리, 신흥), 보길도(예송, 중리, 통리), 생일도(금곡)
- 진도군 (2개) 하조도(신전), 관매도
- 신안군 (3개) 비금도(하트), 도초도(시목), 흑산도(배낭기미)

'남도씨(Sea)'가 알려드리는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수칙!

- 물놀이 전, 필수 CHECK!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 완료
 1. 준비운동은 꼭 하기!
 2. 구멍조끼는 생명조끼!
 3.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4. 안전요원의 말엔 귀 풍긋!
- 물놀이 중, 절대 NO! 이건 진짜 하면 안 돼요!
 5. 음주 후 수영은 절대 금지!
 6. 안전구역 밖으로 나가지 않기
- 사고 발생 시, 이렇게! 침착하게, 빠르게!
 7.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
 8. 무리한 구조는 금물
 9. 평소에 응급처치법 꼭 익혀두기!

여름은 짧고, 안전은 길어요~
남도씨와 함께 즐겁고 안전한 여름을!

더 많은 전남해수욕장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신안 대야도·신도 투어가이드 *2025년 7월 기준



기본현황

대야도	27 가구	40명 인구	3.99 km ² 면적	15.19 km 해안선 길이
신도	33 가구	59명 인구	1.47 km ² 면적	16.16 km 해안선 길이

여객선 운항정보

*대야도와 신도는 직항 노선이 없어, 목포에서 하의도를 경유하거나 신안 도초도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디터에게는 '난이도 상'의 이동 코스였지만, 그만큼 기억에 남는 여정이었어요. 이동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에디터에게 문의해 주세요. 직접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함께하는 내일의 운항정보를 확인해 볼까요? ▶

1. 목포에서 하의도 가는 방법

항차	기항지	가는편		오는편		선사·선박명·비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항차	목포	06:00	-	-	08:45	신진해운 061-244-0522
	장산(북강)	06:45	06:40	08:05	08:00	
	하의(웅곡)	07:15	07:10	-	-	
	신의(상태서리)	-	07:20	07:20	-	
2항차	목포	14:00	-	-	16:45	퍼스트엔젤 쾌속선 28,500원 성인 편도 기준
	장산(북강)	14:45	14:40	16:05	16:00	
	하의(웅곡)	15:15	15:10	-	-	
	신의(상태서리)	-	15:20	15:25	-	

*항로: 장산도 하의도 방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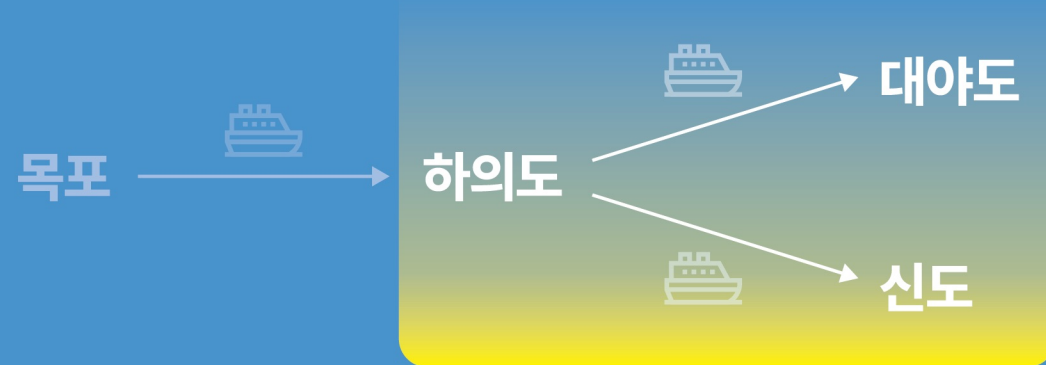
항차	기항지	가는편		오는편		선사·선박명·비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항차 (1호)	목포	05:30	-	-	10:05	신안교통재단 061-242-0888 천사호 차호선 12,350원 성인 편도 기준
	안좌(북호)	-	-	09:10	09:05	
	장산(북강)	06:45	06:40	08:55	08:50	
	하의(옥도)	07:25	07:20	-	-	
	하의(장병)	07:35	07:30	-	-	
2항차 (1호)	하의(웅곡)	-	07:50	08:00	-	
	목포	12:00	-	-	16:50	
	장산(북강)	13:15	13:10	-	-	
	안좌(북호)	13:35	13:30	15:55	15:50	
3항차 (1호)	장산(북강)	-	-	15:40	15:35	
	하의(웅곡)	-	14:30	14:40	-	
	목포	17:30	-	-	22:05	
	안좌(북호)	18:30	18:25	21:10	21:05	
	장산(북강)	18:50	18:45	20:55	20:50	
하의(옥도)	19:25	19:20	-	-		
	하의(장병)	19:40	19:35	-	-	
	하의(웅곡)	-	19:50	20:00	-	



2. 하의도에서 대야도와 신도 가는 방법

항차	기항지	가는편		오는편		선사·선박명·비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항차	하의도(응곡항)	08:00	-	-	12:15	신안교통재단 061-242-0888 슬로시티 3호 차도선 4,900원 6,000원 응곡항 → 대야도 응곡항 → 신도 1,900원 1,900원 당두항 → 대야도 당두항 → 신도 *성인 편도 기준 *사전에약 필수 010-5148-0171
	장병도	08:22	08:18	11:55	11:52	
	옥도	08:35	08:32	11:42	11:38	
	문병도	08:48	08:45	11:28	11:25	
	개도	09:08	09:05	11:08	11:05	
	하의도(당두항)	09:20	09:16	10:58	10:54	
	능산도	09:28	09:24	10:50	10:47	
	대야도	09:50	09:48	10:27	10:25	
	신도	-	10:05	10:10	-	
	2항차	하의도(응곡항)	12:10	-	-	
장병도		12:52	12:48	16:25	16:22	
옥도		13:05	13:02	16:12	16:10	
문병도		13:18	13:15	16:00	15:57	
개도		13:38	13:35	15:40	15:36	
하의도(당두항)		13:50	13:46	15:28	15:24	
능산도		13:58	13:54	15:20	15:17	
대야도		14:20	14:18	14:57	14:55	
신도		-	14:35	14:40	-	

*주의사항 | 이 항로는 전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이 없을 경우 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탑승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선장님과 기항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사전 예약은 당일 오전 7시에 전화로 접수됩니다.



항차	기항지	가는편		오는편		선사·선박명·비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항차	하의(당두항)	07:50	-	-	09:15	해광운수 061-283-9915 섬사랑 15호 차도선 1,000원 하의(당두항) → 대야도 1,000원 하의(당두항) → 신도 *성인 편도 기준
	능산도 대야도 도초(시목항)	-	08:30	08:30	-	
2항차	하의(당두항)	10:10	-	-	11:35	1,000원 하의(당두항) → 신도 *성인 편도 기준
	능산도 대야도 도초(시목항)	-	10:50	10:50	-	
3항차	하의(당두항)	13:50	-	-	15:15	1,000원 하의(당두항) → 신도 *성인 편도 기준
	능산도 대야도 도초(시목)	-	14:30	14:30	-	
4항차	하의(당두항)	15:50	-	-	18:10	*사전에약 필수 010-9452-1363
	능산도 개도 신도 대야도 도초(시목항)	-	16:40	16:40	-	
5항차	하의(당두항)	18:00	-	-	9:40	*사전에약 필수 010-9452-1363
	능산도 개도 대야도 도초(시목항)	-	18:40	18:40	-	

*주의사항 | 이 항로는 전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이 없을 경우 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탑승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선장님과 기항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사전 예약은 당일 오전 7시에 전화로 접수됩니다.



하의도 대중교통

택시 하의택시 **061-275-2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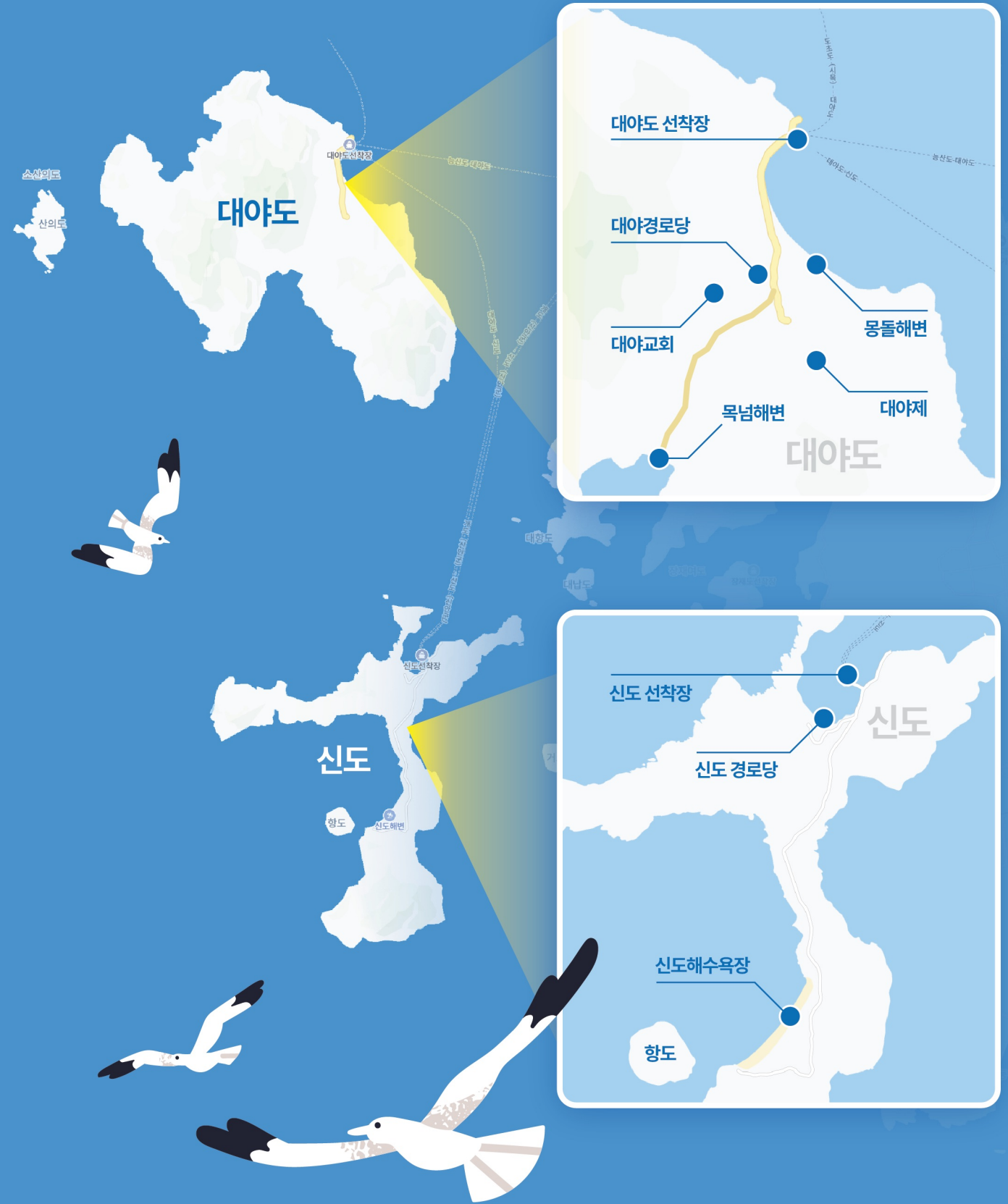
버스 **공영버스 노선(순환버스)**

웅곡항 → 웅곡삼거리 → 전월 → 종남리 → 대통령생가 →

작은개 → 대내기 → 운산 → 대리1구 → 대리삼거리 →

당두항 → 경제사업소 → 전광 → 오류동 → 복지센터 → **웅곡항**

회사	웅곡항	당두항	웅곡항
1	06:30	06:48	07:00
2	07:10	07:28	07:40
3	08:00	08:19	08:35
4	10:20	10:42	10:55
5	11:00	11:19	11:35
6	13:10	13:32	13:45
7	13:50	14:09	14:25
8	14:30	14:52	15:05
9	15:15	15:33	15:45



대야도에서 시작하는 오프라인 리셋 여행 디지털 전파 끊고, 섬에 접속합니다

눈을 떠도 알림은 없고, 손이 갈 스마트폰 대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먼저 하루를 엽니다. 대야도에서는 그렇게 자연이 인사를 건넵니다. 이곳에는 번쩍이는 간판도, 24시간 카페도 없습니다. 대신 사람의 말보다 새소리가 먼저 들리고 신호보다 하늘의 리듬이 삶을 이끕니다. 바쁜 도시의 시간에서 잠시 걸어 나와, '오프라인'이 되는 경험. 대야도에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심터처럼 다가와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보면 처음엔 낯설지만, 곧 느긋한 평화가 마음에 스며듭니다. 익숙한 앱 대신 바다의 물결을 읽고 영상 대신 마을 사람들의 웃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알림이 없는데도 시간이 흘러가고 연결되지 않아도 오히려 마음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306m 울창한 숲과 굴곡진 계곡이 조용히 품어주는 풍경은 자연 그대로의 치유입니다. 사람보다 나무가 많은 이곳에서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정글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숨, 천천한 걸음,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선물처럼 주어집니다.



21개의 나뭇가지에 세월을 품은 구실잣밤나무

거대한 바위를 감싸 안은 콩짜개란

대야도 정글 트래킹을 하면 볼 수 있는 식물



대야도의 풍경을 지배하는 해발 306m 밀림의 산



무리 없이, 잃지 않고, 느긋하게 대야도에서 실천하는 디지털 디톡스 5가지

1. 비행기 모드 ON

급한 연락만 열어두고, SNS는

잠시 꺼주세요.

폰은 가방 안쪽 깊숙이!

4. 새소리에 귀 기울이기

알람 없이 일어나고,

음악 대신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2. 함께 걷는 숲길

대야도 숲길은 이정표가 적어요.

코스는 이장님께 묻고,

혼자보단 동행과!

5. 불편함 = 여유 시작

배터리보다 느리게 흐르는 섬의 시간,

비워내는 하루가 더 깊어요.

3. 아날로그를 꺼내요

종이 지도, 수첩, 손목시계만으로

충분히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주민들의 삶도 자연을 따라 흘러갑니다.

어디서든 들리는 인사, "밥은 드셨어요?", "불편한 건 없어요?"

짧은 인사 한마디에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처음 만난 이도 곧 친구가 되고 낯선 얼굴도 이웃이 되는 곳.

대야도의 조용함은 사람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디지털 신호를 끄고 마음의 신호에 접속하세요.

꺼내지 못했던 감정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얼굴을 드러내는 곳.

배터리는 줄어도 마음은 가득 채워지는 이곳에서 진짜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그런 여행 아닐까요?
하루쯤 모든 연결을 끊고, 섬과 마음을 연결해보세요.
”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완도군, 8월 7~10일 '제6회 섬의 날' 행사 개최

▶ 섬 가치 확산 위해 콘서트·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섬의 날' 행사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 섬이 있는 지자체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6회를 맞는다. 이번 행사는 '천천히 돌아보고 섬' 주제로 8월 7~10일 해변공원 일대에서 다양한 축하 공연과 체험형 전시관 및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행사 기간 중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는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섬의 날' 행사를 알리기 위한 팝업 이벤트가 열리며, 소안면과 신지면에서는 '백섬 백길' 걷기대회, 보길도에서는 섬 풍류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양진형 기자 | 2025. 07. 16.



"머물 수밖에 없는 섬 만들자" 전남도, 여수 3개 섬 특성화사업 선정

▶ 여수 금오도 장자·화정면 사도·거문도 덕촌 '9년간 150억원' 투입

특성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섬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9년간 4단계 지원 방식으로 섬 주민이 스스로 조직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섬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워 소득사업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마을은 각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금오도 장자마을은 툿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사도는 공물 발자국과 마을 경관을 연계한 마을호텔 운영, 거문도 덕촌마을은 삼치를 활용한 필렛형 상품화 개발 등 섬 역사와 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준성 기자 | 2025. 07. 22.



서삼석 "해양강국 위해 조선·섬 정책 해수부로 이관 필요"

▶ 여객선 공영제 도입, 어촌소멸 대응...복수차관 등 도입 요구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를 해수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80만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통합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섬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지만 정착 관련 사무는 행안부 등 5개 부처로 분산돼 단기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며 "섬 주무 부처를 해수부로 이관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재경 기자 | 2025. 07. 14.



여수~부산 152km 해상국도...섬 잇는 5개 교량으로 연결된다

▶ 통영 산양~사랑도~수우도~남해 창선까지 43km 구간 연결
▶ 경제파급 효과 5조 7010억 기대...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큰 효과

경상남도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가 국도5호선 기점을 기존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43km 연장하는 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사업의 핵심 구간으로, 남해안의 단절된 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문훈미 기자 | 2025. 07. 10.



전남도, 19일부터 15개국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 신안·완도서 50명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주제 토론·교류활동

전남도는 '제6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오는 19일까지 7일간 신안군에서, 8월 8~12일 완도군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워크캠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등 15개국에서 입국한 외국 청년과 국내 체류 외국인, 한국 청년 등 총 50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는 모두 35세 이하 젊은 대학생·대학원생으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핵심 주제인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함께 토론하며 협력할 예정이다.

김준성 기자 | 2025. 07. 14.



흑산도 홍어, 국제 워크캠프서 세계 입맛 사로잡아

▶ 흑산도 홍어, K-로컬 미식여행 33선에 선정...세계 무대 발돋움

전남 신안군이 지난 13~19일까지 도초도에서 열린 '제6회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K-관광섬 흑산도의 대표 식문화인 '흑산도 홍어 해체쇼'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K-관광섬 흑산도'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흑산도 홍어 해체쇼'는 신안군 홍어썰기학교를 졸업하고 중급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정태연 조야홍 대표가 직접 시연했다.

양진형 기자 | 2025. 07. 23.



"거문도를 세계에" 박성미, 섬박람회 활용한 관광콘텐츠화 제시

▶ 테니스·당구 국내 도입지, 원양어업 발상지로 역사적 상징성 강조
▶ "체류 중심 관광 패키지 개발로 지역 상권에 활력 불어넣어야"

전남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은 17일 열린 제24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거문도의 독보적인 역사자산을 관광 콘텐츠로 재조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진형 기자 | 2025. 07. 18.

섬의 비경을 열어가자 - 전남 섬 소식은 한국 섬뉴스 와 함께합니다. www.kislandsnews.com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웃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웃